

***How to Overcome the Impact
of Tourism Pressures on
Historic Villages –
Haheo and Yangdong***

Hae Un Rii,
Republic of Korea

Hahoe Village

Andong Hahoe Village
안동 하회(河回)마을

주소 | 05312 | 05312-1111 | 05312-1111

시내안내

개방시간

개방시간

예약프로그램

관광안내

기사

자료실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선
한국의 미와 전통이 있는 역사마을 河回



아케프로그램
정통한 하회마을의 전통을 만나다



민속프로그램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교육프로그램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문화프로그램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공지사항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미와 전통'을 주제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을 둘러보기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사진자료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관광도우미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마을의 문화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문화를 만나다.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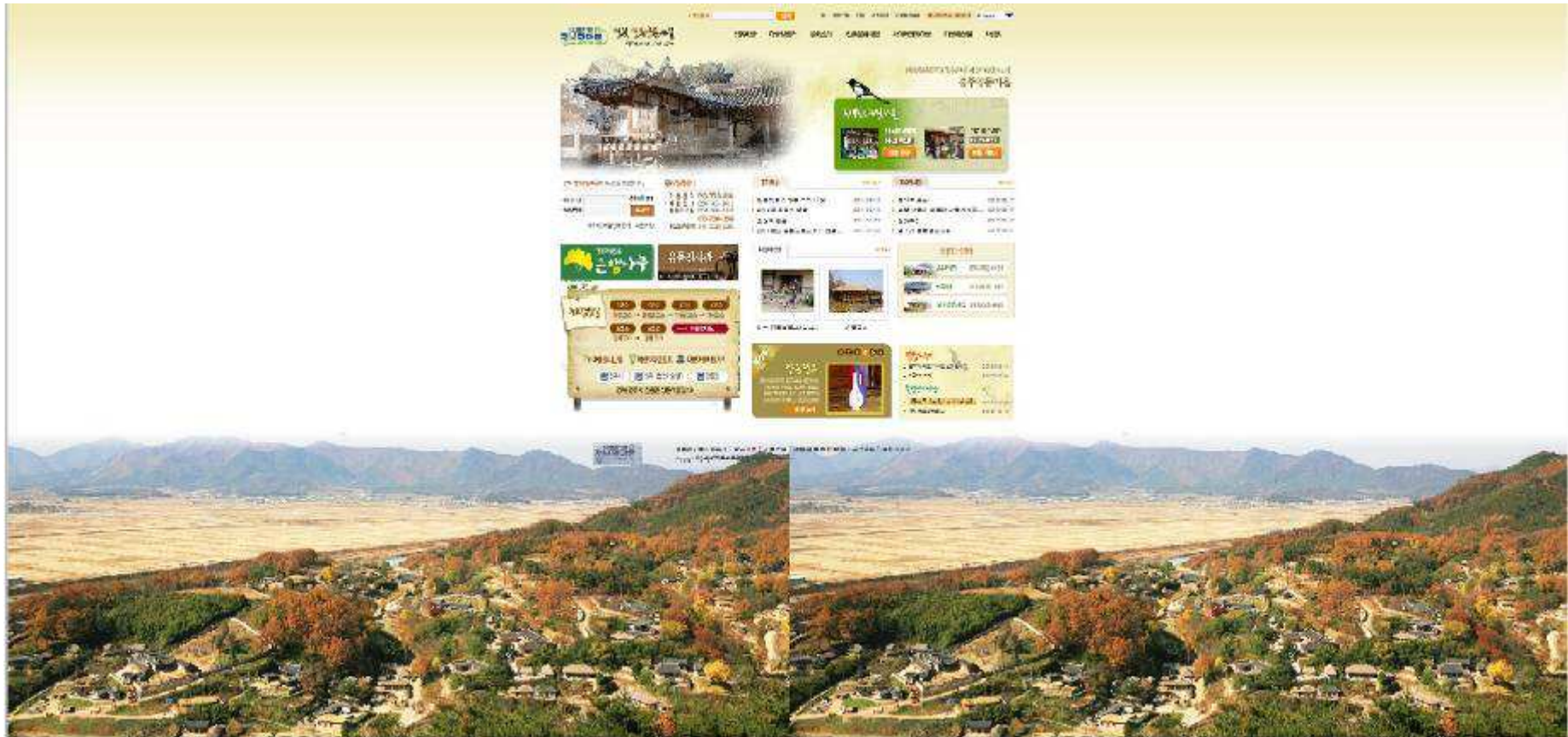
Changing numbers of visitors

	Visitors (persons)				Changes from previous year	
	Total	Korean	Foreigners	Free	persons	%
2006	760,863	443,392	16,431	301,040	-70,130	92.0
2007	782,657	436,996	23,539	322,122	21,794	103.0
2008	773,764	386,423	37,795	349,546	-8,839	99.0
2009	776,396	391,966	40,574	342,856	1,632	100.0
2010	1,088,612	519,011	45,675	523,926	313,216	140.0
2011	1,027,405	431,086	43,700	552,619	- 61,207	94.4
2012	962,396	436,780	59,374	476,223	-65,008	94.0

Various projects for conservation and usage of the village

- Designated Artisan in the village :
 - 5 parts 15 categories **34** persons
 - Housing construction
 -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 Festival
 - Food
 - Artcrafts
- Special lectures on World Heritage
- Traditional life culture experience
- Conservation and Use program
- **2 categories 13 persons (Yangdong)**

Yangdong Village





정통문화와 한국정취가 완벽하게 살아숨쉬는 고장

경주양동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양동마을체험
(주권마을)
체험신청하기



양동마을체험
(주권가민)
체험신청하기

경북 경주양동마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디 @ invil.org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문의/전화안내

- 마을 문의 010-3518-4184
- 체험 안내 054-762-2633
- 컴퓨터교실 054-760-7352
- 070-7098-3569
- 정보화위원장 011-9588-2020

공지사항

- ▶ 양동마을 입장료 부과 내역 2013/09/12
- ▶ 2013년 초청의 말씀 2013/02/18
- ▶ 초청의 말씀 2012/01/30
- ▶ 2011년도 프로그램관리자 선정... 2011/01/20

자유게시판

- ▶ 즐거운 추석~ 2013/09/17
- ▶ 요즘 해돋이 정보화 마을에서는... 2013/09/17
- ▶ 천거구리 2013/09/12
- ▶ 경주시 동물경연대회 2013/09/07

양동마을신문
은행나무

유물전시관

주요탐방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하촌코스 → 물방골코스 → 수종당코스 → 내곡코스
5코스 6코스 → **마을안내도**
두곡코스 → 횡단코스

마을오시는길 | 매킨저다운로드 | 다른마을바로가기

경주시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 강동면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34

마을사진관



미느 여름날들 -매산고...



겨울준비

전통한옥관광

- 초원식당 054-762-4436
- 이향정 010-4755-1056
- 김구덕초가집 010-9529-8808

양동초청

2014년 여름을 맞이하여 귀성귀민
사정을 고려한 장소로 석양길
그늘 아래 푸른 담에서 만든
약과, 그리고 새우젓 맛

상세보기

양동목이

-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입니다 2013/09/11
- 입장료 문의 2013/09/10

충청남도지사

- 대한민국 대표축제 김제자랑선주 2013/08/22
- 세계유교문화축전 2012/10/10



선조들의 삶과 정서가 묻어 있는 곳

마을일람터

NEWS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마을사진관
- 디카콘테스트
- 출향민게시판
- 관광도우미

양동마을신문

문의/전화안내

- 마을 문의 010-3518-4184
- 체험 안내 054-762-2633
- 컴퓨터교실 054-760-7352
- 070-7036-3569
- 정보화지원장 011-9508-2020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34

양동마을신문

항구위치: 홈 > 마을일람터 > 주민뉴스

1 미공양속에 여럿이거나 독종인이나 단체의 배방, 근거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배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사용되지 않아 삭제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쓰기

글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추천
19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9호.	박남자		2018/08/18	259	
18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8호.	박남자		2018/06/18	26	
17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7호.	박남자		2018/05/18	15	
16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6호(특별호...)	박남자		2018/03/18	8	
15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5호.	박남자		2018/03/18	6	
14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4호.	박남자		2012/10/10	243	
13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3호(1주년 ...)	박남자		2012/08/21	129	
12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2호.	박남자		2012/07/20	82	
11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1호(특별호...)	박남자		2012/06/18	87	
10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10호.	박남자		2012/05/11	101	
9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9호.	박남자		2012/05/11	20	
8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8호.	박남자		2012/03/07	167	
7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7호.	박남자		2012/02/08	115	★★★★★
6	양동마을신문 '동향나무' 6호.	박남자		2012/01/04	121	★★★★★

Eunhangnamu



은향나무 | yangdong village 2011.08

8月
창간호
양동마을 마을신문 창간호

은향
나무

은향나무,는 양동마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마을과 외부를 소통하는
장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날 발간되어
마을문화이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yangdong.invi.org/>

양동마을은 양동마을은 2004년,
신민초등학교가 개교
후 2005년 11월 15일 양동마을
창립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11월 15일
양동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날 11월 15일은 양동마을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11월 15일은 양동마을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11월 15일은 양동마을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은은 문명 출판사
주: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대표: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대표: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주: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대표: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대표: 지은은 출판사, 지은은 출판사

no. 1

양동마을 마을신문 창간호

1주년 기념

은향
나무

발간 2011.08.01
2012.07.31

13호

Interview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 Don't receive the entrance fee
- Traditional experience
- Taking care of residents as well
- Take trash back with visitors
- too many visitors during weekends
- Limit 300 persons per day

이태은 임희유 이혜은 이진현 이태은 율대은 이태은 김지영 이태은 박재은 이태은 황승욱

○ 양동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 김주서가 방문객에게는 입장권이 없고 주민들이라도 세입자 제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이 혼잡해지고, 생태체험의 양동천이 가뭄이
 스레끼의 진흙이 섞여있어요. 마을의 스레끼를 버리지 않고 이리 저저기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노력해서,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전 마을을 해이 부어주지 않고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 마을의 전통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료로 하면 좋겠어요.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유
 스러운 역사와 방문객들의 경험들이 많은 마을이라는 순간, 그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 주말에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놀 수가 없어요. 주말에 자정까지도 친구들 놀고 싶어요
 ▶ 저희도 민속마을 눈이 뜨지 않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이 되면 좋겠어요
 ▶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 많은 순간, 주민들을 위한 마을이 아닌, 방문객을 위한 마을이 될 것 같아요

○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저는 양동마을 시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양동마을에 오는 방문객들을 300명으로
 제한시킬 거예요. 방문객들
 매일 똑같은 건물로 제한시켜서
 마을에 입장이 되고 순번대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아이도 무조건 마을이 될 것 같아요

▶ 양동마을을 예약한 순서대로 하루에
 300명만 수용하고, 시간을 정해서 마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을이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아직도 마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객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요~"

★ 인터뷰를 마친 후...
 아이들은 주민만을 위한 것도, 방문객만을 위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마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동마을의 보존을 위해서
 나름의 제안방법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기도 했고 감동하기도 했다.

정호/박은지 - 김도현